

6월의 안테나

월간양계

노영한

(본지 편집국장)

계란값이 회복되자 사료값도 경춤

작년 10월 이후의 채란업계 불경기는 양계장의 사료값 외상 누증으로 사료 공장의 경영 압박까지 물고왔던 것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다.

4월말부터 사료공장과 양계인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을 비롯한 갖가지 노력으로 5월초부터 계란값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5월말에는 생산비선인 45원 (대란기준)대를 돌파해서 46원에까지 이르러 양계업자들은 노계를 팔아 제사를 비운 곳에 육추준비도한 창이었고 밀린 사료값도 서서히 갚아 나가는

계획 등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료공장들이 6월 1일 부 사료값을 7~10% 인상하여 계란값이 회복된 효과를 상쇄하고, 육추계획이나 외상값 상환 계획을 바꾸어야 하게 되었다.

또 이 책이 발행되어 독자들 손에 들어가는 6월 10일 경에는 계란값이 개당 2원정도 하락할 전망이어서 양계장은 앞으로 사료의 선택 등 경영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료값 인상은 작년 7월 사료값 자율화 이후 처음으로 각 회사마다 특징있는 사료를 만들고 가격도 이에 맞추어 인상 함으로써 양계인들은 이제 배합사료 선택에도 과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무조건 가격만 싸운 것을 찾는 것 보다는 철저한 기록으로 경제적인 사료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다.

양계사료의 주사료인 산란초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공장도 가격으로 kg당 174원에서 180원 (부가가치세 제외) 하는데 이는 가격

에서 공장별로 3.4%의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사료 가격의 인상율은 7%에서 최고10.8%까지 인상되었는데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양계사료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가 대부분 CCC 또는 유산스 등 중단기 차관으로 수입되어 이로 인한 환차손과 금리의 부담이 연간 7~8%되고 (이는 판매 대금을 국내은행에 적금 등으로 일부 보전 받는 것으로 계산함) 둘째, 정부양곡의 도정량 감소로 강피류가 물량면에서 크게 부족하여 한달 전 kg당 85원 하던 것이 현재는 130원에도 구입이 어려운 형편으로 강피류 대체품을 카나다 등 외국에서 수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강피류는 배합사료 전체의 약 21%가 소요되는데 (양계 사료에는 12~15% 사용) 이중 15% 정도만이 물량이 확보되고 6% 정도가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강피류 부족 현상은 자연히 옥수수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카로리 단백질 비율 맞추어야 하니 고단백 고에너지 사료를



만들게 되고 또한 여름철 닭의 사료섭취량 감소를 예상해서도 품질향상은 바람직 하여 품질 향상으로 인한 인상 요인도 있다. 이렇게 강피류 사정으로 품질이 향상되어 사료값이 인상되는 비율은 3~4%라고 사료 공장들이 말하고 있으며 이번 사료가격 인상으로 실제 닭의 사료섭취량도 5~7%정도 감소 될 수 있다고 사료 메이커측은 말한다.

어떻든 이제 양계 경기가 회복되어 더욱 경제적인 효율사료가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축가의 준비가 요청되고 있다.

다만 품질의 개선없이 다른 회사들이 7~8% 가격을 인상하면 이때 따라서 올리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축가들의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인상된 사료에 대해 품질 개선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

여름철 계분처리의 합리화필요

도시 근교 양계장의 경우,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계분냄새 때문에 이웃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다행히 닭들은 소변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돼지의 경우처럼 공해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돼지는 500두 이상 사육할 경우 공해 방지 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양계의 경우는 아직도 환경청에서 너그럽게 보아주고 있다.

그러나 양계인들이 계분처리를 깨끗이 하지 못할 경우 양계장도 환경청의 지도와 규제를 받아야 되니 여름철을 앞두고 더욱 청

결에 힘써야 되겠다.

계분을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양계장의 큰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그간 통일벼 계통의 다수확 품종의 재배로 이제는 지력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서 더 이상의 증산이 어렵다고 한다.

이제 퇴비나 기비가 없는 벼농사는 생각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냉해나 병충해에 유난히 약한 것도 지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노력해도 그 노력만큼의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이 되어가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사정이 비슷하여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유축농업이 주창되고 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비옥한 땅이었으나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그 땅이 저주받아 척박하게 되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 때만 하여도 힘센 장정 둘이 포도 송이를 베어야 할 정도이었으니 얼마나 그 땅이 비옥 하였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사막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가 인정이 메말라가고 금비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 온 결과 우리 농촌도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는 느낌이다.

일부 양계장에서는 계분을 건조해 놓기만 하면 kg당 약 40원 정도로 미쳐 건조하지 못해 판매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고등소채나 과수원에서도 계분을 구하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양계장에서도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여름철까지 밑에 물똥을 깔치거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계분을 현금화 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계분의 건조는 보통 햇볕에 말리는 것이 보통



이나 이는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시간과 장소가 많이 소요되고 비가 오든지 하면 건조할 수 없는 단점이 많아 대규모 양계장에서는 부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비와 운영비가 들기는 하나 화력건조 등 적극적 방법으로 오히려 양계장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조 계분의 3대 비료 성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항	목	성 분 함 량
수	분	15.5%
질	소	2.78%
인	산	4.17%
가	리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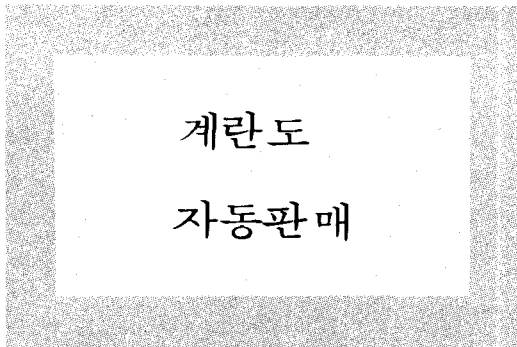
더우기 계분에 값싼 생석회 등을 혼입하면 연료비와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도 있다.

이 계분은 유기비료로써의 비료효과 외에 토양의 산도 (PH) 등 토양개량 효과도 동

시에 언어 석회 결핍의 방지와 병충해 병해 등도 막을 수 있는 다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인기가 있다.

또 계분을 사용하면 과일, 채소, 도마도 등의 맛이 좋아지고 화학비료대가 크게 절약되는 등 날로 계분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름철을 앞두고 계분 처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양계산업은 공해산업이 아니고 이 강산을 비옥하게 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계란도 자동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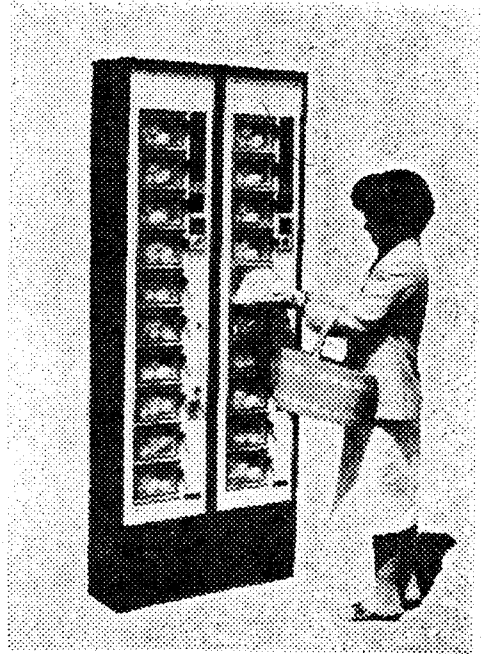
이웃 일본에서는 계란의 無人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계란 판매기가 등장하여 소비자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계란의 경우 가공란보다 신선란의 소비추세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욕구가 더욱 신선한 계란을 찾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은 것 같다.

이 계란 판매기는 일반 커피 판매기 처럼 대로변 등에 놓게 되며 판매되는 대로 농장에서 직접 공급하므로써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신선란을 공급할 수 있어 이상적이며, 양계장의 소득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이 판매기는 10개, 20개, 30개 등의 포장으로 나누어 비닐포장이 되어있으며 일반 자동 커피 판매기 등과 조작 방법은 꼭 같다.

현재로는 일반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대란



△ 한 주부가 자동판매기에서 계란을 사며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과 중란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게 되며 처지는 등급의 계란 판매, 인건비의 절약과 농장직접 판매라는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장소만 좋으면 기계 상작은 2~3개월이면 되기도 하여 앞으로 우리도 시행해 볼 만하다.

번화가나 또는 입구 등에 놓아 퇴근시 가정에 신선한 계란을 사들고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방법이나 아파트 단지에 판매기를 놓아, 아파트 주부들이 수시로 농장에서 바로 가져온 신선한 계란을 요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기게 하는 방법 등 계란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내의 큰 양계 단지나 대규모 사육가들이 시험적으로 실시해봄직하다.

뜻이 있는 분은 본회로 (22-6917) 연락바란다.